

광주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용자·이자 지원

지난해 상·하반기 이어 3번째 긴급자금 1천억원 추가 공급 전국 첫 유흥업소 지원책도 마련 중기 경영안정자금 2200억 지원

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무담보·무이자·무보증으로 지원을 한다. 시는 특히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 11차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지원에 이어 3번째 지원책이다.

상반기 제1차에는 1만8349개 업체에 5071억원이, 제2차에는 2500여개 업체에 500억원이 지원됐다. 이번 3차 지원에서는 대출 조건과 이자·보증료 지원은 동일하지만, 1~2차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 소재 모든 소상공인 가운데 1~2차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용자받을 수 있으며, 2년 후 일시상환 및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2.7%이며, 보증수수료는 0.7%다. 시는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보증 수수료와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이자율도 최대한 낮췄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월 1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 홈페이지(www.gjsinbo.or.kr)나 상담센터(062-950-0011), 시중 은행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특히 유흥업소 등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중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조치로 유흥업소 등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해 25일부터 시행 중인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용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광주에서 2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1000만원까지며 금리(고정)는 1.9%, 대출 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다.

이용섭 시장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지면서 특히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의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 2차 특별보증 용자 지원(3차)에 이어 제3차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며,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했음에도 시중은행 용자지원에서 제외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22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쓴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는 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반기에 예정된 1600억원을 선명칭이 전부터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6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을 30% 이상인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 '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지식서비스업체 등이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업체당 3억원 한도다. 프리(PRE)·명품 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 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은 5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시는 또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비로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프리(PRE)·명품 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 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등은 1%를 추가 지원한다.

상반기 신청은 2월 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용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작성해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22일부터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백신보관용 초저온냉동고 생산 회사인 경기 동두천시 일신바이오베이스 본사를 방문해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 또 경고장...“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자영업 손실보상제 공개 지시

김용범 차관 “그런 뜻 아니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를 향해 또 한번 경고장을 꺼내 들었다.

정 총리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를 향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개선을 공개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직접 의지를 밝힌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기재부가 부정적 기류를 보이자 직접 제동을 건 것이다.

정 총리는 전란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격노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총리는 당시 김 차관의 발언을 보고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정 총리는 이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김 차관을 겨냥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질타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기재부 때리기’는 지난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기재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뿐 아니라 집권 후반기 공직 기강 다잡기 차원으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총리가 이번에 기재부에 강력 경고한 것은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룬 정

책에 기재부가 반대 표명을 한 것이 공직사회의 ‘레임덕’ 조짐일 수 있어 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 총리 옆에 배석했던 김용범 차관은 회의가 끝난 뒤 정 총리에게 다가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연신 해명했다고 한다. 김 차관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선 “정 총리께서 지시한 대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는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미 지난 19일 기재부 등에 손실보상제 법제화 준비를 지시했다. 당시 기재부는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지지율 43.6%...8주만에 40%대 회복

리얼미터 조사...5.7%P 반등

민주당, 국민의힘 제치고 1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신년 기자회견과 개각을 계기로 급반등하며 40% 중반대 수치를 회복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을 제치며 정당 지지율 1위로 올라섰다.

리얼미터는 21일 YTN 의뢰로 지난 18~20일 전국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5.7%포인트 오른 4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11월 4주차 조사(43.8%) 이후 줄곧 30%대에 머무르다가 8주만에 40%대로 다시 올라선 것이다. 부정 평가는 52.6%로 5.0%포인트 내렸다. ‘무름·무응답’은 3.8%로 0.6%포인트 감소했다.

리얼미터 측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개각 내용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남권(13.5%p ↑)·PK(12.4%p ↑), 인천·경기(6.4%p ↑)와 서울(4.6%p ↑), 여성(7.6%p ↑), 30대(10.5%p ↑)·70대 이상(9.8%p ↑)·50대(9.1%p ↑)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진보층(10.8%p ↑)은

물론 보수층(8.3%p ↑)에서도 올랐지만, 중도층(1.1%p ↓)에서는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2.0%포인트 오른 32.9%를 기록하며 국민의힘을 8주만에 앞질렀다.

국민의힘은 3.1%포인트 내린 28.8%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26.6%, 국민의힘은 35.1%를 각각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이 8.4%포인트 치솟은 34.5%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9.9%에 그치며 순위가 역전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권 적합도, 이재명 27%·이낙연 13%·윤석열 10%

4개 기관 합동 여론조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 적합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에 두 배 이상 격차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이 지사를 꼽은 응답자가 27%로 가장 많았다. 이 대표는 13%, 윤 총장은 10%로 뒤를 이었다.

2주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이 지사는 3%포인트

트 올랐으나 이 대표(2%p)와 윤 총장(6%p)은 하락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4개 기관 합동 전국 지표조사(NBS)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윤 총장 역시 지난해 11월 조사 대상에 다시 포함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급락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지사를 꼽은 응답자가 45%, 이 대표가 30%였다.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35%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